"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지원 길 찾겠다"

윤장현 광주시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면담

"오월 정신 중심에 두고 현안들 풀어나갈 것"

윤장현(오른쪽) 광주시장, 이철우(가운데)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당위성과 추진 경과를 담은 건의서를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5·18민주화운동의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과 관련해 "복원 방향과 내용, 예산 확보 등 행정 지원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약속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책위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철우 공동상임위원장,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이들은 도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회의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축물의 내외부 원형을 복원해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의 항쟁의 모습을 재현하겠다는 입장을 도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재 단절돼 있는 옛 도청 본관과 별관 3~4층을 '오월의 문'으로 연결, 본관과 민원실을 각각 잇는 연결 통로를 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자 센터 철거, 옛 전남경찰청의 본관 경관을 가리는 LED 펜스 철거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도 함께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사업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몇 사람이 대표 자격으로 왔지만, 이 자리에는 37년간의 5월의 울음이 함께 담겨 있다"며 "역사적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하고, 5월 당사자들과 대책위의 의견, 전문가 토론,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모은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정신이다"며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고 약속한만큼, 우리도 오월 정신을 중심에 두고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장관은 또 "광주시민들이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 얼마나 절실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지 깊이 이해한다"며 "광주에서 모아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 회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순서, 사업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에 최대한 빨리 내려가 눈으로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그 때 더 많은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대책위간 실무적인 협의는 이우성 문체부 문화콘텐츠실장과 김영정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중심이 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 원 중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해 만든 민주평화교류원(5·18민주평화기념관)은 원형 훼손문제를 둘러싸고 5·18단체와 갈등을 겪으며, 전당 개관 이후 1년7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국정기조 맞춰" 광주시·전남도 조직개편 '정중동'

정부조직법 개편안 의결…신설조직 많지 않을 듯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서 국정 기조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직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공포했다. 기존 17부·5처·16청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3실 6국 3본부 58과에 9개 직속기관과 16개 사업소, 전남도는 2실 7국 1본부 49과에 18개 직속기관과 2개 사업본부, 7개 사업소를 두고 있다.

당초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흡수 유지되고, 보훈처 등 지자체 조직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과거와는 달리 시, 도 조직 개편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국가 정책 패러다임 등에 맞춰 녹색성장담당관과 국제협력과, 건강증진과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참여정부 당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혁신도시평가담당관은 폐지했다.

또 담당(5급) 단위에서는 녹색성장정책, 광역행정,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국제교류, 자전거정책 등 5개 담당을 신설하고 창의혁신 담당을 없앴다.

전남도 역시 투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경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제2건국팀',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분권담당관실', MB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정책실'이 국정기조에 맞춰 중요 부서로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을 반영해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안전총괄부서를 핵심 부서로 신설하고, 2급 이사관을 책임자로 앉혔다.

또 광주시는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대통령 의지에 맞춰 불량식품과 환경 등 민생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안전행정국에 설치했다.

전남도 역시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 안전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 코드에 맞춘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주로 중앙 단위에서 이뤄지고, 핵심기조인 일자리 문제의 경우 일자리경제국(광주)과 일자리정책실(전남)이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어 신설조직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서은홍·김정환 기자

올 상반기 여수 광양항 총물동량 증가세 유지

국내 수출입 1위이자 국내 최대 복합물류 항만인 여수?광양항의 총 화물물동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여수?광양항의 목표 물동량인 2억9,000만톤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여수?광양항 물동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억 4,300만톤을 처리했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에 대비한 석유화학 원자재의 수입화물 증가와 기계·차량 및 부품 등의 교역량 상승 등으로 인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화물의 경우 국내 최대 복합항만으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11~'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화물 중 자동차화물 처리량은 '16년 105만대를 처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동구, 아동 안전지도 제작·배부

광주 동구가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지도는 학교주변의 위험요소, 사각지대, CCTV 설치지역 등을 지도에 표시해 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율곡초교, 용산초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지도 제작은 전문강사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해바라기아동센터, 동구지원봉사센터, 동구여성친화서포터즈 회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관공서, 공터 등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을 조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전지도는 홍보용 공책으로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부했으며,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서구, 걷기 나눔 캠페인 펼쳐 눈길

광주 서구가 걸으면서 기부하는 걷기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걷기 나눔 캠페인은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걷기 사업의 일환이다.

스마트폰에서 '빅워크(Bigwalk)' 어플리케이션을 켜두고 참여 모음통 '광주서구보건소 나의 발걸음, 희망 한걸음'으로 접속하여 걸음 시작을 누르면 GPS나 활동센서로 걸음이 측정된다.

10m 걸을 때 마다 1원이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돈으로 환산되어 목표액 천만원이 달성되면 걷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전달되는 모바일 기부 플랫폼이다.

특히, 걸으면서 소모된 시간, 거리, 칼로리 등을 계산해주어 건강관리도 하면서 나눔도 실천할 수 있다.

목표액 1,000만원은 지난 6월 13일 더_블랙외과의원 (광주점)에서 기부하여 모금통에 걷기 목표가 달성되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진다.

북구, 짧은 여름방학 신나고 알차게 보내세요

광주 북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 및 학부모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일곡도서관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조선 최고의 서재를 찾아라'를 주제로, 운암도서관에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고려시대로 떠나는 역사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운암도서관도 관내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독서놀이 ▲그림책과 함께하는 자신감 쑥 스피치 교실 ▲지도로 즐기는 세계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우산동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18일까지 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무등산 제1수원지에서 '동요로 배우는 기초수학', '어린이 컴퓨터 코딩', '여름 숲 체험' 등 지역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산구,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 추진

광주 광산구가 불법전용으로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산지의 지목 변경을 내년(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오랜 시간 동안 논, 밭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 지난달 3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근거한다.

지목 변경 대상은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경작한 산지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산 소유주이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은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한다.

다만,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전용은 사법조치 후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전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1월 이전에 개발행위가 이뤄진 임야에 한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을 원하는 산주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광산구 공원녹지과(산림팀)에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개발 적합성과 법률을 검토한 후 지목변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설립 ■양도상속증여 ■기업진단
■기장대리 ■건설면허신청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